

부동산도 민생도... 돌아선 민심 잡기 '백약이 무효'

민주당 정권재창출 위기감 고조

부동산·민생 당장 성과내기 어려워
코로나 4차 대유행 가능성도 악재
쇄신 공언 하루만에 당은 내분 조짐
혁신 보수 야권 통합 움직임도 위협

여권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여파가 심상치 않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참패는 수도권과 영남을 넘어 전국적인 민심 이반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에서 여권의 정권재창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년 집권론'을 거론하는 등 여유를 보여왔던 여권은 강력한 인적쇄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돌아선 민심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슈가 심상치 않고 부동산 및 민생 경제 문제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여기에 여권의 내분에 맞물린 야권의 통합 움직임은 정권재창출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여권 민심을 다독일 부동산과 민생 경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불·탈법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원색원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152건의 의혹과 관련된 60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수사팀 구성과 특검 도입을 두고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아파트 값을 잡는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설익은 정책을 펼칠때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민생 경제도 쉽지 않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직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코로나19 방역과 맞물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실업 문제 등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재난지원금 카드도 거론되지만 이미 4차례 실행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대로 커지고 역발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4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권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민주당의 내분과 야권 통합도 변수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쇄신을 위한 결집보다는 내용을 꺾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등을 거론하며 반성과 쇄신을 꺼내들자, 일부 친문 의원들과 당내 강성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의 주장에는 사실상 친문(친 문재인) 진영에 대한 책임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174석의 거대 정당을 잘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거론되는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감과 리더십이 약하다는 점에서 집단 지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여권의 단일대오 형성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야권이 혁신 보수로 변화하면서 보수 야권 통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여권에 위협적인 지점이다. 결국, 여권이 4·7 재·보궐선거로 제기된 '무능과 오만'의 프레임은 '쇄신과 결집'을 통해 깨뜨리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백신 접종률 문제도 폭발성이 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국내 1차 접종률은 2.21%(114만8060명)에 그쳤다. 초기 물량 확보가 늦어졌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 부작용 등으로 접종이 지연된 탓이다. 이런 속도라면 정부가 제시한 '상반기 안에 1200만명 1차 접종'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또 국민의 70% 이상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독립운동 태극기 4종’ 한 자리에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왼쪽부터)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현재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해 있다.

도 빨간 불이 켜졌다. 최악의 경우, 백신 확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내년 대선때까지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는 여권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은 가장 민감한 민생 문제"라며 "정부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당대회 선출로 바뀐 민주 최고위원 광주·전남선 서삼석 의원 출마 유력

14일 지역 재선 의원들 관련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로 사퇴한 최고위원의 후임을 5·2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현재 송갑석(서구갑)·서삼석(영암무안안남)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경선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따라 경선을 포기했던 전남지역 서삼석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최고위원 선출방식을 중앙위에서 전당대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중환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용은 몇억 원씩 드니 당헌·당규대로 중앙위에서 선출하도록 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당원들이 기왕이면 전당원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자고 요구해서 오늘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전 대표 사퇴에 따른 당 대표 경선과 함께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선거도 전당대회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원직

인 원내대표에 더해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비대위는 25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일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차기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12일 회의에서 4·7 재보선 백서발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선출이 가시화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14일 '재선 의원 모임'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송갑석·서삼석·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신정훈(나주화순) 의원 등 재선 이상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이들 의원은 "한국 정치에서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서 광주지역 양향자(서구을) 의원이 선출된 만큼, 이번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에 나서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전대 새 인물 부재... 흥행도 쇄신도 난망

당권 레이스 밋밋한 3파전

친문·비주류 동거론 부상

16일 원내대표 선거 3명 물망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5·2 전당대회도 '참신한 인물이 없다'는 비판 속에서 집중을 받지 못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차기 당 대표를 당 재건과 함께 정권 재창출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있어 '흥행이 실패할 경우' 당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선거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3명의 후보는 앞다투어 광주·전남을 찾고 있으며 광주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이들 후보와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어 지역 표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윤호중·안규백·박원주 의원 등 3명이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로 거론되는 후보 주자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도부 총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거전에는 쇄신론으로 무장한 '뉴 페이스'들이 대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9일 초선의원 비공개 모임에서는 적어도 1명 이상은 최고위원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 참패로 급부상한 친문주자 2선 후보론이 어떤 식으로든 지도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어찌 됐든 패배 책임이 당내 주류인 친문에게 쏠리는 만큼 당의 투표를 모두 가져가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당권은 통합형 비주류, 원내사령탑은 친문계가 나눠 갖는 역할분담 시나리오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친문과 비주류가 지도부에 동거(同거)하는 형태다.

다만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주자들 면면을 보면 모두 친문이다. 아닌 후보가 누가 있느냐"며 "있지도 않은 계파주의로 이번 지도부 선거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